

NEW PRODUCT · NEW TECHNOLOGY

첨단과학의 결실, 우리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새 제품 · 새 기술은
첨단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부단한 연구결과와 소산이다.
본 난은 최근에 개발 보급되고 있는
새 제품 · 새 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게재한다.

	충격없는 운동
값싼 첨단기술	회전축마 자전거
차세대 세단	거리의 배터랑
미래형 트럭	맹짐을 본다
니 에어백	느긋한 하드탑
쿠이한 풍차	가려움이며 인병!
세대의 대형집	해없는 살인가스
만능 카메라	



충격없는 운동

리복 스포츠사가 제작한 '스카이워커'를 사용하면 충격이 적거나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어 나이많은 운동가들의 무릎과 관절에게 도움이 된다. 활모양의 발받이 속으로 발을 옮겨 막대기를 잡고 몸 전체의 미끄럼 운동을 개시하는데 발을 끌고 걷기부터 달리기까지 다양하다. 값은 3천4백95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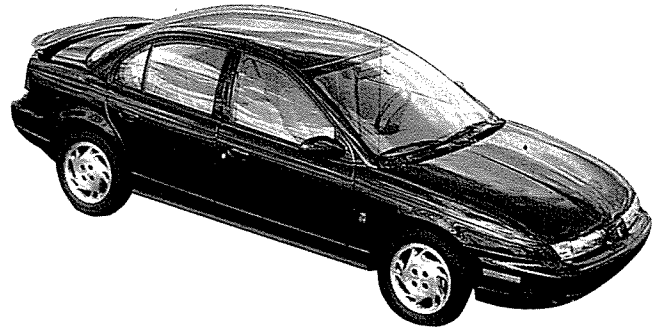
값싼 첨단기술

혼다시의 시빅차는 연속가변 자동트랜스미션을 가진 최초의 양산승용차를 대표한다. 네덜란드의 반 도르네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뛰어난 연비의 트랜스미션은 변속비의 속도를 바꾸면서 일정한 매분 회전수로 달린다. 이 트랜스미션은 혼다의 기본형 시빅에서 사용할 수 있어 첨단기술이 고급 승용차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기본가격은 약 1만달러.



회전목마 자전거

함께 움직이는 2개의 페달과 오르내릴 수 있는 의자를 가진 '리시고' 자전거를 타면 유원지 회전목마를 탄 것과 같은 움직임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동작에는 재래식 페달을 밟을 때의 에너지의 반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메이커인 시스템 엔지니어링사는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재미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페달은 또 재래식의 한쪽이 올라가고 다른 한쪽이 내려오는 스타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값은 3백70~4백70달러.



저세대 세단

다음 세대의 새턴 세단과 왜건은 마침내 스타일의 멋을 가진 낮은 값의 승용차라는 본래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보디는 강력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며 서스펜션은 유순하고 엔진은 매끄럽고 조용하다. 이 승용차는 또 부식하지 않고 쉽게 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값은 1만5백달러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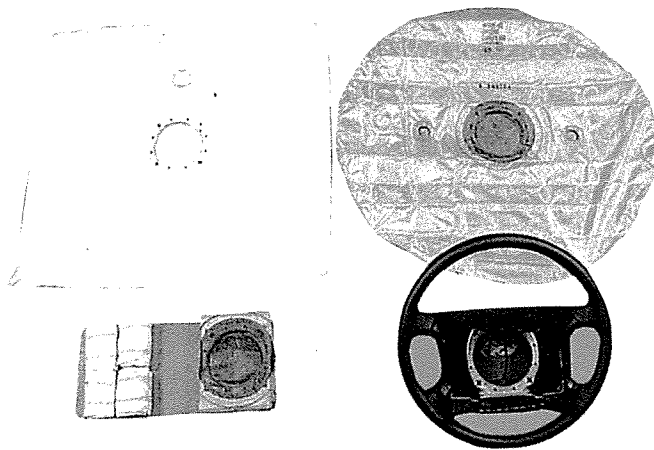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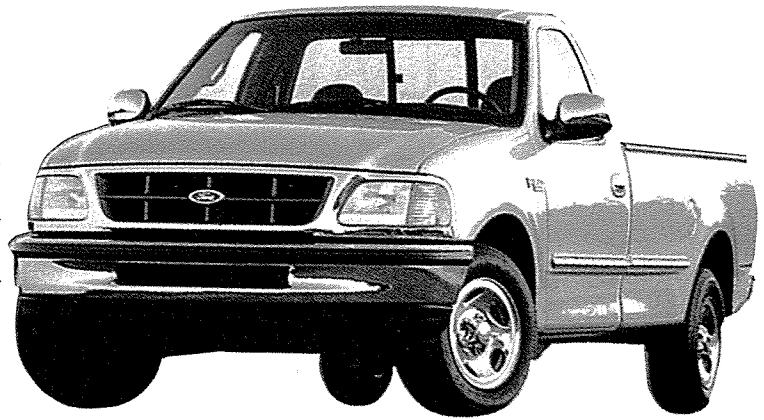


기리의 베테랑

고속의 경주용 차로 시내를 주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포르세 터보시는 이 일을 거뜰하게 해치웠다. 전형적인 경주용차 엔진은 높은 수준의 rpm(분당 회전수) 이하를 맴돌지만 포르세의 440마력 쌍터보 공냉식 엔진은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우아한 느낌을 준다. 기본가격은 9만9천달러.

미래형 트럭

포드 F시리즈의 표준 크기의 픽업은 종래보다 가볍고, 강하고 공간이 더 넓으나 오염배출량은 적고 갤런당 주행거리는 더 길다. 새로운 오버헤드 캠 엔진을 비롯하여 프론트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패키지도 다시 설계되었다. 뒷문을 포함하여 많은 특징은 이 차를 다음 10년간용 픽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값은 약 1만4천달러부터.



미니 에어백

표준 에어백(위의 오른쪽)은 2개의 비디오카세트의 공간을 차지하지만 미 국립 샌디아연구소와 프리시전 패브릭 그룹이 개발한 테크놀로지 에어백(기술에어백)은 셔츠 주머니(4개를 민것 : 위의 왼쪽)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들은 예컨대 도어 패널과 시트 속을 포함하여 차 속에 더 많은 에어백을 설치하여 측면은 물론 처음으로 뒷좌석의 승객에게도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미니 백은 1997년 또는 1998년 모델 승용차에 팔 수 있을 것인데 가격은 종래의 에어백과 같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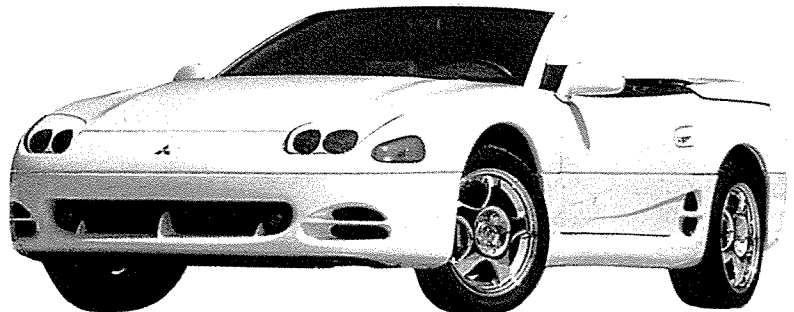


맹점을 본다

'사이드마인더'는 승용차의 지붕기둥이 만들어 내는 맹점(잘 보이지 않는 점)을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하여 감시하는 시멘사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대량생산함으로써 불과 50달러의 비용으로 운전자들에게 노선을 바꿀 때의 자신감을 부추겨 준다. '사이드마인더'는 1999년 모델 자동차에 제공될 것이다.

느긋한 하드탑

많은 사람들이 뒤로 제칠 수 있는 강판지붕을 가진 진짜 하드탑 컨버터블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미츠비시만큼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3000GT스파이더는 지렛대와 금속으로 접을 수 있는 탑을 갖고 있다. 콘솔단추를 누르면 사이드 윈도우가 자동으로 열리고 탑은 깨끗하게 트렁크 속에 접혀진다. 기본가격 5만7천5백달러.





우아한 풍차

항공계에서 빌려온 기술을 이용하여 종래보다 가볍고 비용이 덜드는 새롭고 우아한 풍력 터빈을 설계했다. 뉴월드 파워 테크놀로지사가 개발한 250kw시험용기계인 '노스윈드 250'은 회전하는 동안 터빈날의 피치(상하의 요동)를 제어하기 위해 항공기식의 보조날개를 사용한다. 2개의 날을 가진 회전자와 함께 이 보조날개는 한조각으로 제작되어 날 뿌리에 무거운 플랜지와 모터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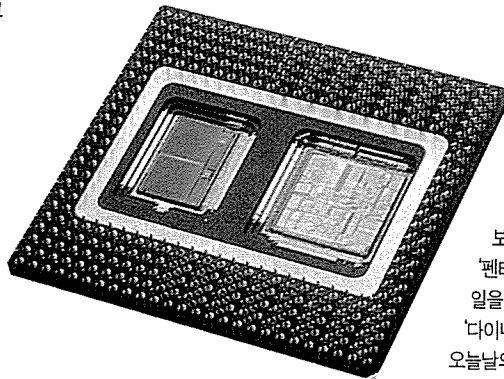
뿔 없는 살인가스

일산화탄소탐지기는 치명적인 이 가스의 수준이 올라갈때 집주인에게 경고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랭글리연구소가 개발한 촉매시스템은 일산화탄소를 해가 없는 이산화탄소로 전환한다. 본래 이산화탄소로 운용되는 레이저용으로 개발된 이 장치는 산화주석과 백금으로 코팅한 벌집모양의 세라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용의 이 장치는 1997년에 시장에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며 값은 약 5백달러로 어림된다.



가려움이어 안녕!

거의 60년만에 처음으로 선을 보인 신형 유리섬유인 '미라플렉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렵지 않다는 것이다. 오웬스-코닝사는 이 절연재료를 만들기 위해 2개의 필라멘트를 융합시킨다. 종래의 뽀뽀한 유리섬유와는 달리 이 부드러운 섬유는 수시로 소용돌이친다. 폴리에틸렌 포장지에 단단히 밀봉된 '미라플렉스'는 다시 풀어 놓으면 본래의 부드러움을 되찾는다. 이 섬유는 8 3/4인치 두께를 가지고 종래의 유리섬유 R-25와 같은 절연도를 갖는다.



다음세대 대형칩

본래의 펜티엄의 새로운 형제집인 인텔의 '펜티엄 프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보다 빠르고 보다 다양한 개인용 컴퓨터세대를 예고하고 있다. '펜티엄 프로'는 단순한 선형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중복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이나믹 엑시큐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오늘날의 최우수 펜티엄칩보다 2배나 처리속도를 빨리할 수 있다. '펜티엄 프로'는 또 원도 96용으로 작성된 32비트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다.



만능 카메라

포켓크기의 '카시오 QV-10'은 이미 카메라 속에 있거나 또는 앞으로 찍을 사진을 보기 위한 LCD스크린을 가진 카메라다. 이것은 또 컴퓨터와 TV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 이 카메라는 또 저장된 그림을 스크린상에서 확대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다. 8백99달러의 이 카메라는 96장의 컬러 스틸을 갖고 있다. QV-10은 컴퓨터에서 옮긴 영상을 TV에서 보여 줄 수 있고 슬라이드용으로 비디오테이프에 복사할 수도 있다.